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2020년 12월

휴먼러니짐

참가안내

[문학] 작은 책장으로 떠나는 여행

★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반짝이는 말들을 찾아서

[철학] 미래는 과거보다 가깝다

★ 기술발전이 불러온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인간과 과학의 관계를 다시 묻다

[문화] 누가 문화의 발자국을 보았나

★ 낯설고도 익숙한 풍경들이 들려주는 문화의 수수께끼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휴머니즘”에 참가하시는 방법

※ 후원회원 가입은 나다 홈페이지 <http://nada.jinbo.net> “후원하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참가신청

참가신청 연락을 해 주세요

〈새로 참가하는 경우〉

전화 또는 나다 홈페이지 “주말강좌-휴머니즘” 게시판에서 신청 글 작성.

▶ 알려주실 것 : ①참가자이름 ②휴대전화 ③신청강좌 ④회원가입여부 ⑤입금자명

〈앞 과정과 연결해 계속 참가하는 경우〉

이전 과정에 이어 계속 참가하시는 분들께 새 과정 참가 여부를 먼저 여쭙고 신규 참가 접수를 시작합니다.

2. 후원회원 가입 선택

후원회원은 주말강좌(휴머니즘)와 방학특강 강좌후원금이 20% 할인됩니다.

▶ 후원회원 : 월 회비 1만 원 이상을 납부. 홈페이지 상단 “후원하기”에서 양식 작성.
(※ 홈페이지에 글을 쓰기 위한 로그인 회원과는 별개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강좌후원금 납부

[2020년 12월 휴머니즘] 강좌후원금

초등부 문학 20만원(10강), 중등부 철학 20만원(10강), 고등부 문화 10만원(5강)

▶ 회원은 80%만 납부

▶ 납부 계좌 : 국민은행 543037-01-005880 교육공동체나다

4. 그 밖에

★ 참고하실 사항

1. 강의는 주 1회, 2시간입니다.
2.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강좌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초등부와 중등부는 구정연휴 기간 1회 휴강합니다.

★ 강좌가 열리는 곳

교육공동체 나다(마포구청역)

서울시 마포구 망원로 7길 44(망원2동 479-28) 3층

문학 초등

작은 책장으로 떠나는 여행 (10강)

★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반짝이는 말들을 찾아서

참가자	12~13세 초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2020년 12월 20일~2021년 2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여기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작은 책장이 있습니다. "아, 또 책이야? 지겨워" 라고요? 특하면 책 좀 읽으라는 지긋지긋한 어른들의 잔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사람들에게 책이 지긋지긋한 원수처럼 여겨지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만화영화나 웹툰을 보며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 속의 세상으로 흠하고 빠져들어 간 적이 있지 않나요? 재밌는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장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담긴 책들을 가지런히 꽂아뒀습니다.

길게 늘어져 있는 글자들의 미로 앞에서 막막한 당신을 위해 재밌는 이야기가 그 길을 안내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우리 앞에는 어떤 말들이 나타나게 된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위로해주기도 하고, 응원해주기도 하고, 함께 이겨내 주기도 할 그런 힘을 가진 말들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줄 반짝이는 말들을 얻기 위한 여행을 함께 떠나보지 않을까요?

.....

1강_ 『엄마가 남긴 27단어』, 샤렐 바이어스 모란빌, 아름다운 사람들

무대 위에서 멋진 옷과 모자를 차려입고, 마법을 부리던 ‘위대한 알리기에리’씨가 바로 코비 알리기에리의 자랑스러운 아빠예요. 사실 엄마는 아빠보다 더 멋지고 비밀스러운 진짜 마법을 부릴 수 있지만 이건 오직 코비만 아는 비밀이랍니다. 5년째 여행에서 돌아오지 않는 엄마는 여행을 떠나기 전 마법의 힘을 가진 27개의 단어를 알려줬어요. 하지만 그 단어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엄마가 떠난 뒤 혼자 알아내야만 했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마법을 부려 코비와 주변 사람들을 지켜줬던 단어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2강_ 『우리 반 인터넷 사이트 고민의 방』, 재클린 윌슨, 시공주니어

스피드 선생님이 어느 날 인터넷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요. 바로 '고민의 방'. 고민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누구인지 들키지 않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훌륭한 게시판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담아둔 채로 누구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기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여기 당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을 수 있는 '고민의 방'에 그 고민을 털어놓아 보세요. 그럼 누구라도 당신의 고민을 함께 나눠줄 거예요.

3강_ 『치외법권 위니 공화국 회고록』, 리사 그래프, 씨드북

위니는 자신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열 명의 동네 친구들이 위니의 작은 나무집에 모여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절대 내려가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위니와 친구들! 아무리 힘이 센 어른이라도 100년 전 사라진 피타지오 공화국의 땅에 있는 위니 공화국에 함부로 침입할 수도 마음대로 아이들을 끌어낼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부모에 대해 벌이던 이 시위는 어느새 전 세계의 어린이와 어른들의 싸움으로 번져 갑니다. “애들은 부모 말을 들어!”라고 화를 내는 어른들과 “온 세상의 어린이를 위해 절대 지지 말아!”라며 환호하는 어린이들. 세상과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4강_ 『웨이사이드 학교 별난 아이들』, 루이스 쎄커, 창비

웨이사이드 학교는 한 층에 교실이 하나씩 있는 30층짜리 건물이에요. 이 특이한 학교에는 엉뚱한 아이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이곳에서는 글씨를 거꾸로 읽고, 종일 머리카락 숫자를 세고, 교실에서 졸다 깬 학생이 잘 자는데 왜 깨우냐고 화를 내는 일 정도는 별일도 아니죠.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똑똑해’ 하고 비밀을 말해준 선생님에게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다들 아는 건데요.’ 하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학교.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유쾌하게 무너뜨리는 웨이사이드 학교의 일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강_ 『기호 3번 안석뽕』, 진형민, 창비

특 하면 ‘공부 잘하는 학교’, ‘사이 좋은 학교’, ‘깨끗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뻔한 말들뿐인 학생회장 선거는 참 재미도 없고, 실제로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학교를 위해 학생들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던 학생회장들은 대체 우리의 심부름꾼인지 선생님들 심부름꾼인지... 이 지루한 학생회장 선거판에 혜성처럼 나타난 후보, 기호 3번 안석뽕! 특별히 잘난 거 없는 동네 친구 셋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합니다.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우리가 원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지?’ 그리고 품나는 선거 벽보가 탄생했습니다. “일등만 좋아하는 학교, 너나 가지삼! 일등부터 꼴등까지 다 좋아하는 학교, 우리가 만드셈!”

6강_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 진형민, 창비

“엄마, 나 만원만 주면 안 돼?” 용기 내 엄마에게 말해보지만 돌아오는 건 ‘돈이 땅을 파서 나오는 줄 아냐?’, ‘찌끄만 게 돈 쓸데가 어디 있다고’, ‘용돈 받은 건 어찌고?’, ‘돈 맡겨놨어?’ 같은 말들뿐. 좋아, 주지 않겠다면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 어, 그런데 대체 돈을 벌기 위해선 뭘 해야 하는 걸까요? 동네 집주인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돈만 잘 벌던데, 우리는 전단지 이렇게 열심히 돌렸는데 왜 돈을 벌기가 힘들까요?

7강_ 『거짓말 학교』, 전성희, 문학동네어린이

“여러분은 세계를 뒤흔들고, 새 역사를 만들, 그런 위대한 거짓말을 배우기 위해 이 학교에 왔습니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학교 ‘매티스 스쿨’. 미래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경쟁률을 통해 입학한 아이들만이 거짓말이라는 위대한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학교의 존재를 알지 못하지만, 사실 세상의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거짓말 학교 출신이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기업의 회장? 국회의원? 법조인? 아마 그들 역시 이 학교 출신일 가능성이 높아요.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거짓말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걸지도...?

8강_ 『순재와 키완』, 오하림, 문학동네어린이

소중한 친구의 목숨과 인류의 발전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친구를 살리지 않는다면, 당신이 위대한 연구를 성공시킬 수 있고, 전 인류는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커다란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발전을 일으킨 당신이 역사에 길이 남는 명예와 엄청난 부를 얻게 되는 멋진 옵션도 있지만, 이 소중한 친구와 다시는 즐거운 시간을 만들 수 없게 되겠지요. 그때 누군가가 당신의 귀에 속삭입니다. ‘재 하나만 없으면 더 큰 걸 얻을 수 있는걸?’ 이 세상에는 정말 누군가를 희생하더라도 얻어야만 하는 것이 있는 걸까요?

9강_ 『아빠와 나 그리고 아빠?』, 이기규, 휴먼어린이

세상에는 같은 성별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이 그들의 사랑이 이상하고 잘못된 사랑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곤 합니다. 정말 같은 성별을 사랑하는 일은 끔찍하고 잘못된 일인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사랑인 걸까요? 주인공 효이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빠의 애인 연우민이 너무 미웠거든요. 하지만 함께 지내면서는 그가 다정하기도 하고, 알뜰기도 하고, 상처가 있기도 하고, 멋지기도 한 사람이란 걸 알아버렸어요. 게다가 우리 아빠처럼 평범한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 그저 같은 성별의 사람을 사랑할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10강_ 『꽃섬 고양이』, 김중미, 창비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 네 편의 짧은 이야기에는 다양한 동물과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두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작고 약하기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언제나 작고 약한 존재들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애를 써야만 합니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 아니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을 때, 이 세상에서 내가 작고 약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외롭고 지칠 때, 이야기 속 동물과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합니다. 너는 약하고 못났다면 미워하거나 돌을 던지는 대신 서로를 포근히 안아줍니다. 그렇게 작고 약한 우리가 서로를 안아줄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철학 중등

미래는 과거보다 가깝다 (10강)

★ 기술발전이 불러온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인간과 과학의 관계를 다시 묻다

참가자	14~16세 중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2020년 12월 20일~2021년 2월 28일 오후 1시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과학기술이 우리를 유토피아로 데려가 줄 것이라고, 인간은 오랜 시간 믿어왔습니다. 반복되는 노동을 다양한 기계들이 대신해주고 감각을 무한대로 확장해 온갖 쾌락을 제공해주는 전자매체가 일상화된 이 시대는 어쩌면 과거의 인간이 꿈꾸던 유토피아와 닮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인지 이 시대를 사는 인간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노동을 대신해주는 기계는 인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전자매체는 감당할 수 없는 정보량을 쏟아내며 인간들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제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편함과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것은 저 오랜 과거에 최초의 인문학자들이 물었던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일까?”

지금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유일한 서식지인 지구를 그 어느 때보다 넓고 깊게 뒤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인 과학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자신을 파괴하고 그들의 서식지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은 과학기술을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 결과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찬란한 장밋빛 일 수도 칙흑 같은 어둠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인간의 손을 떠나버려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과학 그리고 인간의 미래에 관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

1강_ 오래된 미래 :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

언제나 내일이 오늘보다는 조금 나은 날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당장 코로나 19만 하더라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많은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있으니 말이죠. 이렇듯 당장 내일의 행복도 장담하지

못하는데 먼 미래를 내다본다는 건 얼마나 막연한 일일까요?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려 애쓰는 일이 그리 무모한 일만은 아닙니다. 근거는 이미 충분하니까요. 여태껏 살아온 시간이 우리의 미래를 보여줄 것입니다.

2강_ 중립이라는 편견을 벗다 : 과학사와 과학관

암을 치료할 신물질을 발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람 대신 나르는 로봇을 개발했다고 하면 훌륭한 과학자라며 모두 손뼉을 치겠죠? 하지만 그 박수가 위험한 비수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과학이 단순히 사실의 학문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과학은 거짓말의 학문이기도 합니다.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을 밝혀내는 것 못지않게 거짓말을 잘하는 것 또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알쏭달쏭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역사 속 과학자들을 통해 알아보고, 그것이 그들의 미래 즉, 우리의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봅니다.

3강_ 인간의 조건 : 인간과 기계의 경계에서

인간들 대부분은, 아니 어쩌면 우리는 모두 이미 사이보그일지도 모릅니다. 오래전부터 인간은 기계를 통해 몸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확장해왔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몸의 부분들이 기계로 대체될 것입니다. 만약 마지막 세포 하나까지 기계로 대체된다면 그 존재도 인간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집 곳곳을 종횡무진 누비는 인공지능 로봇청소기도 생명체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4강_ 안드로이드는 전기 양의 꿈을 꾸는가 : 인공지능, 지배와 복종의 논쟁을 넘어

인간보다 바둑과 체스를 잘 두는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똑똑한 것일까요? 인간보다 적절한 판결을 내리는 인공지능 판사 솔로몬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인간보다 현명한 것일까요? 인간보다 정확하게 수술하는 인공지능 의사 허준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인간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것일까요? 인간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인공지능 화가 미켈란젤로가 등장한다면 그것은 인간보다 예술적일까요? 혹시 어떤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될 미래가 올까요? 인간보다 인간적이야...

5강_ 인공 자궁을 둘러싼 논쟁들 : 정말 윤리만이 문제일까

인공 자궁은 1932년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에 등장한 이후 현재 심하게 조산한 미숙아 양을 성장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이 소설이 약 600년 후의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 그 시간이 엄청나게 앞당겨지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인공 자궁의 발전을 두고 어떤 이는 임신과 출산으로부터 여성을 해방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기술이 생명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며 반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의견은 어떠신가요. 단, 입장은 저 두 개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6강_ 인간을 위한 일자리는 없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

당신이 만약 편의점 사장이라면, 계산 정확하고 감시 잘하고 삼각김밥 몰래 먹을 일도 없는 로봇 점원과 가끔 정산도 안 맞고 시급 적다고 투덜거리는 청소년 중에 누구를 알바로 쓸까요? 같은 값이면 로봇을 채용하는 게 당연히 더 유리하겠죠. 하지만 현실의 당신은 편의점 알바라도 해서 용돈이라도 벌고 싶은 청소년입니다. 로봇 점원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면 당신에게 허락된 알바 자리 하나는 영영 사라진 셈입니다. 아직은 미래의 일이라고요? 이미 곳곳에 무인 편의점이 생기고 있지 않던가요. 로봇과 일자리 경쟁을 해야 하는 미래의 당신에게 과연 승산은 있을까요?

7강_ 기술과 안전의 상관관계 : 과학은 인간을 안전한 미래로 이끌어줄까

몇 년 전, 구글은 자동주행 차량이 상용화되면 음주운전이나 운전 부주의 등은 옛날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주행 차량은 이제 곧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만 보면 안전과 관련된 불안 요소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기술의 발전은 우리를 보다 안전한 사회로 인도해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막연한 믿음 때문에 그 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함정에 빠질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만 합니다. “기술발전이 우리를 안전사회로 이끌어줄까?”가 아니라 “기술발전으로부터 안전할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말입니다.

8강_ 네트워크형 인간 : 모든 것이 연결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

제 어디서나 자신의 기억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으며, 미디어 역시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미디어의 일부가 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은 이 네트워크를 지금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정교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촘촘한 그물은 안락한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동시에 사람을 움짱달짝 못 하게 움아매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사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9강_ 과학, 차별을 만나다 : 과학은 소수자에게 어떤 의미일까?

많은 사람이 과학이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수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더 편리한 도구들이 소수자들을 불편함 혹은 노동으로부터 해방해 줄 것이라는 예측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이 예측은 정말 맞는 것일까요? 만약 이 예측이 전부 맞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차별받는 이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과학은 무엇일까요.

10강_ 이성과 과학의 시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람들은 오랜 시간 기술과 과학의 발전을 편리함과 경제발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중된 시각은 사람들이 지금껏 느끼지 못했던 낯선 공포감을 마주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공포감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더 나은 삶을 전망하고 확신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더욱 폭넓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앞선 아홉 번의 수업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는 이 시대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말이에요.■

문화 고등

누가 문화의 발자국을 보았나 (5강)

★ 낯설고도 익숙한 풍경들이 들려주는 문화의 수수께끼

참가자	17~19세 고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2020년 12월 20일~2021년 1월 17일 오후 3시 30분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사람들은 지구 전역에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방법이 가장 우월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집스레 예전에 살던 방식을 고수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식을 기꺼이 버리고 다른 집단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가까이 붙어사는 두 집단의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해 싸우고 죽이는 일도 일어납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땅덩어리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곳에 사는 우리의 모습을 닮아있기도 하고 또 무척 다르기도 합니다. 때로 다른 이들의 삶에서 우리의 과거나 미래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들의 삶에서 우리가 살면서 놓치고 살아가는 허점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라고 불리는 인간의 삶의 거대한 표현을 우리는 겉만 보고 신기해하거나 부분만 보고 선불리 오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문화들의 낯설음을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의 수수께끼로 받아 안을 때, 그 수수께끼를 ‘두껍게’ 읽어내는 연습이, 우리가 발 담그고 있는 문화 역시 낯설게 바라보고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두꺼워지는 경험을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문화가 우리를, 그리고 나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1강_ 소와 돼지에 관한 진실

지방과 살코기가 잘 어우러져 너무 맛있는 돼지고기! 비싸서 자주는 못 먹지만 살짝만 구워도 입안에서 살살 녹는 소고기! 우리 사회에서는 저녁 무렵 조금만 번잡한 거리를 걸어보면 고깃집에서 지글지글 소고기, 돼지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나 이 맛있는 고기들을 안 먹는 멍청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슬람 사회에서는 돼

지고기를 절대로 못 먹게 하고, 인도인들은 굶어 죽어도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해 못 할 그들의 문화가 너무 어리석어 보여 헛웃음이 나진 않나요? 그러나, 그들을 비웃는 순간 그 비웃음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식탁에 꽃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2강_ 존 프럼을 기다리며

호주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비누아투 섬의 타나 마을, 이 마을에서는 “미국이 이 땅에 와서 영국을 몰아내고 마을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예언을 믿는 이상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 예언을 했다는 예언자, ‘존 프럼’은 1930년대 타나 마을에 왔던 미군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타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단순히 마을에 주둔했던 미군이 아니라 위대한 예언자로 생각하며 심지어는 창조주로 여기거나 ‘재림’할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존 프럼 데이’에는 가슴에 ‘USA’라고 새긴 마을 청년들이 총 대신 대나무 창을 들고 미국식 제식 훈련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들은 왜 일개 미국 병사를 신처럼 추앙하게 된 것일까요? 혹시 ‘존 프럼’이 정말 재림하는 것은 아닐까요?

3강_ 너에겐 선물을 나에겐 영광을

당신은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왜 선물을 좋아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나요? 혹시 선물을 받은 당사자가 기뻐하는 모습을 좋아하는 순수함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인가요? 당신은 분명 그이에게 생일날 선물을 했는데 그이가 당신의 생일날 선물하지 않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혹시 기분이 나쁘다면 당신이 선물하는 목적은 훨씬 덜 순수해지는 것 아닐까요? 혹시 선물할 정도로 여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선물하는 이유는 결국 이기심인 것은 아닐까요?

4강_ 결혼의 경제학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러 결혼식장에서는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하객들 사이에 길게 깔린 융단을 걸어 한 남자에게 물건을 건네듯 딸의 손을 건넵니다. 때로 ‘도둑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 남자는 딸의 손을 가로챈 후 아버지에게 꾸벅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는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딸바보 아버지는 돌아서 가장 앞좌석에 앉은 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 눈물

은 ‘딸을 뺏긴 것이 억울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인류학자는 말했습니다. 결혼은 그것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언제나 여성을 사고파는 매매혼이었다고….

5강_ 청소년 문화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고찰

청소년문화는 어른들이 그들을 판단하는 주요한 근거가 됩니다. 끝나기는커녕 오히려 진화하고 있다는 소비적인 패딩 문화, 세종대왕이 아시면 땅을 치고 통곡하실 괴상한 언어들, 걸리면 약도 없는 중2병,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버린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 등등. 어른들의 시선에서 보면 괴상하기 짝이 없는 문화들 말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이런 문화들의 주요 원인으로 청소년의 미성숙과 불안을 내세우며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 주위에 자신들이 설정한 울타리를 쳐놓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판단은 정말 합리적인 것일까요? 앞서 말한 문화들이 대두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껏 ‘사춘기’ 정도에만 근거를 두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문화인류학 마지막 수업에서는 청소년문화에 관한 기존의 시선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수수께끼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풀어냅니다. 그리고 꼬일 대로 꼬인 청소년에 대한 시선을 바로 잡아 나갑니다.■

■교육공동체 나다 2020년 12월 휴머니즘 소개 마침■